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WSJ: 인플레이 재개되면 대비책 쉽지 않아

[미국 금융]

- WSJ: 연준이 금리 인하해도 달러 강세 유지할 듯

[트럼프 행정부]

- WSJ: 미 대중관세가 미 무역에 미치는 영향
- NYT: 트럼프 정책 폐지로 전기차 수요 줄어들 수 있다

[중국 경제]

- Bloomberg: 트럼프 취임 전에 선주문으로 중국 수출 올해 최고치

[오일]

- Bloomberg: 유가 하락,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임박

[원자재]

- Bloomberg: 금속 가격 상승... 달러 가치 하락 때문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Macy, 회계 직원이 1억5천4백만불 규모 비용 숨겨
- CNNBusiness: 맥도날드, 저렴한 신메뉴 추가
- CNNBusiness: 미 식료품점 소프트웨어 회사, 랜섬웨어 공격 받아
- WSJ: UPS, 화물 사업 과대평가로 4천5백만불 배상 명령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If Inflation Is Back, Protecting Against It Won't Be Simple

인플레이 재개되면 대비책 쉽지 않아

- 미국의 견조한 경제와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및 관세 강화 정책으로 투자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.
- 그러나 불행히도 인플레이를 막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인 원자재 구매, 특히 오일 구매는 평상시와 달리 효과가 약하다.
- 현재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증이 인플레이를 유발하고 있다. 중동 전쟁은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,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미국 경제에서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 인플레이가 오를 수밖에 없다.
- 그리고 관세와 불법 이민자 추방은 인플레이를 키우지만 동시에 경제에 타격을 준다. 현재 금값과 오일, 구리 가격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, 이 같은 현상이 인플레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**WSJ: Dollar Likely to Remain Firm Even if Fed Cuts Rates**
연준이 금리 인하해도 달러 강세 유지할 듯

- ING에 따르면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하할지라도 달러는 올해말까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- 현재 시장은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지만, ING는 0.25%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. 이에 따라 달러화 상승에 포지션하는 베팅 확대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역풍이 불 수 있다.
- 그러나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, 그리고 유로존 경제에 비해 강한 미 경제의 성과로 인해 달러 강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[트럼프 행정부]**WSJ: How Trump's Tariffs on China Changed U.S. Trade, in Charts**
미 대중관세가 미 무역에 미치는 영향

- 1기 행정부 때 대중 관세를 강화했던 트럼프가 2기 들어 대중관세를 한층 확대하기로 공언하고 있다.
-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세계로부터의 상품 수입은 여전히 증가해 지난 2017년 2조3천억달러에서 작년 3조1천억달러로 늘어났다.
- 중국 수입품 중 주요 수입품인 반도체, 가죽 백, 랩톱 등은 관세 타격을 받았다. 작년에 이들 품목은 2017년보다 중국 수입 규모가 35% 하락했다. 작년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14%로 20년만에 점유율이 가장 낮았다.
- 반면에 멕시코, 베트남, 대만, 말레이시아산의 수입이 늘었다. 그러나 멕시코와 베트남 수입품의 상당 부분은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.

WSJ 기사

NYT: How Trump Could Upend Electric Car Sales
트럼프 정책 폐지로 전기차 수요 줄어들 수 있다

-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 및 자국 생산 활동 진작을 위한 인플레이 감축법(IRA) 시행으로 전기차의 경우 신차는 최대 7천5백불, 중고차는 4천불

의 연방 감세 혜택을 받아왔다.

-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질 경우 전기차 판매는 27% 감소할 수 있다. 현재 전기 자동차의 등록은 올해 1백20만대를 상회했는데,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질 경우 전기차 등록 차량 숫자가 31만7천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- 현재 트럼프의 IRA 폐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정부는 전기차 리베이트 프로그램 재개를 검토하고 있으며, 현대와 니산 등 자동차 업체들은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.

NYT 기사

[중국 경제]

Bloomberg: Chinese Exports to Hit Record This Year Before Second Trump Term

트럼프 취임 전에 선주문으로 중국 수출 올해 최고치

- 대중 관세를 위협하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전에 업체들의 선주문이 몰려 중국의 수출이 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.
-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7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이는 미 대선을 앞둔 10월의 5% 증가율보다 오른 수치이며, 올해 총수출액은 3조5천4백80억불로 지난 2022년의 최고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Falls After Axios Report of Israel Truce With Hezbollah

유가 하락,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임박

- 유가가 하락했다.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조건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 지역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이다.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2.5% 하락해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거래됐다.
-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말 OPEC+가 증산 계획을 또다시 연기할지 주목하고 있다. 한편, 재무장관 지명자 Scott Bessent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석유 생산을 하루 수백만 배럴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원자재]**Bloomberg: Base Metals Climb as Dollar Drops After Trump's Treasury Choice****금속 가격 상승... 달러 가치 하락 때문**

-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 매니저 Scott Bessent를 지명한 후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. 이에 따라 철광석과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했다.
- 구리는 8주 연속 하락했다가 1.1% 상승해 톤당 9천62 달러를 기록했다. 알루미늄은 1.5%, 아연은 1% 상승했다. 철광석도 1.6% 상승해 톤당 102.2 달러를 기록했다.
- 트럼프 당선 이후 금속 시장은 달러 가치 상승, 세계 최대 금속 소비국인 중국에 미칠 영향 등의 우려로 몇 주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.
-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은 Bessent가 경제 및 시장 안정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,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WSJ: Macy's Says Accounting Employee Hid Up to \$154 Million in Expenses****Macy, 회계 직원이 1억5천4백만불 규모 비용 숨겨**

- Macy가 소액 패키지 배송 비용 회계 담당 직원이 수년에 걸쳐 최대 1억5천4백만 달러의 배송비를 숨긴 사실이 발견됐다. Macy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미루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.
- Macy는 해당 사실 때문에 현금 관리나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. 또한 다른 직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, 해당 직원은 해고된 상태라고 말했다.
- Macy는 11월 2일에 끝난 분기의 조사 전 예상 매출은 2.4% 감소한 47억4천만 달러였다고 밝혔다. FactSet 분석가들은 Macy의 매출이 47억2천만 달러일 것으로 예상했었다. 명품 브랜드인 Bloomingdale's와 Bluemercury도 이번 분기 비슷한 성장세를 보였다.

WSJ 기사

CNNBusiness: McDonald's is giving its menu the biggest shakeup in years**맥도날드, 저렴한 신메뉴 추가**

- 저번 주 금요일, 맥도날드가 저렴한 신메뉴 McValue를 공개했다. McValue는 올해 인기 있던 5달러 식사 메뉴가 중심이 된다. 여기에 아침 식사로 하나를 사면 하나를 1달러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다. McValue는 2025년 1월 7일부터 미국 매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.

- 맥도날드는 몇 분기 동안 부진한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맥도날드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가격이 약 40% 상승하면서 고객들 사이에서 맥도날드의 가격 대비 가치가 떨어졌었다고 말했다. 10월에는 대장균 사태도 있었다.
- 식품 산업 연구 및 컨설팅 회사 Technomic의 수석 대표 David Henkes는 “McValue가 맥도날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.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태인 만큼 저렴한 메뉴가 인기 있을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CNNBusienss 기사

CNNBusiness: Software company providing services to US and UK grocery stores says it was hit by ransomware attack 미 식료품점 소프트웨어 회사, 랜섬웨어 공격 받아

- 미국과 영국의 식료품점을 고객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공급 회사 Blue Yonder가 이번 주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.
-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사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지만, 회사 공용 클라우드 환경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.
- Blue Yonder는 저번 주 토요일 성명에서 “11월 21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관리형 서비스 호스팅 환경에 장애가 발생했다. 꾸준히 피해를 복구 중이다.”라고 밝혔다.
- 영국의 대형 식료품 체인 Morrisons와 Sainsbury의 대변인은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정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.

CNNBusienss 기사

WSJ: UPS Ordered to Pay \$45 Million for Overvaluing Freight Business UPS, 화물 사업 과대평가로 4천5백만불 배상 명령

- 금요일,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UPS(United Parcel Service)에 4천5백만 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다.
- UPS가 2021년 경쟁사 TFI International에 자사 화물 사업을 8억 달러에 매각할 당시 회계상 과대평가를 해 투자자를 속였다는 혐의 때문이다.
- 2019년 UPS는 화물 사업이 약 14억 달러의 가치가 있지만, 3억5천만 달러에서 6억5천만 달러에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. 따라서 약 5억 달러의 손실이 기록돼야 했었다.
- 하지만 UPS는 화물 사업이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자문사의 분석 결과만 회계에 반영했다.

- UPS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. 다만, 벌금을 내고, 앞으로 법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.

WSJ 기사

[보고서]

美 금융전문가들, 대선 전부터 '국가부채'를 더 크게 우려 연준 조사 결과...인플레 우려는 뒷전

미국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인플레이션보다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부채를 더 크게 우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.

23일(현지시간)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지난 8~10월 시장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, 국가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많이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경기 침체 가능성과 글로벌 무역 전쟁 가능성도 우려 요인에서 순위가 이전보다 올라갔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